

유럽,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 대폭 강화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43%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 '무료 할당제' 2026년부터 폐지 배출권 가격 한국 7배 될 듯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산업 가속화를 위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이하 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TS란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역대 탄소배출 총량을 조절·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ETS 적용 대상에 해상 및 폐기물 소각 산

업 등이 추가되는 등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고 유럽의회측 협상 대표인 독일의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설명했다.

'ETS II'라는 명칭의 별도 제도를 통해 2027년 1월부터는 건물·도로교통 분야도 포함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 시 ETS II 시행을 2028년으로 1년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역의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확정에 따라 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ETS의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무료 할당이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EU내 탄소집약 산업군이 일정 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둬으로써,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역의 수출기업과 가격 경쟁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보호 장치다.

CBAM이 시행되면 역의 수출기업들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다만 EU 업계에서는 CBAM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 산업 보호를 위해 무료 할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EU는 2026년부터 2.5% 소폭 감축을 시작으로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등으로 무료할당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2034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

한국 등 역의 수출기업들이 적용받는 CBAM도 2026~2034년 무료 할당제 순차 폐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유럽의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의 파스칼 캄페 의원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행 t당 80~85유로에서 약 100유로(14만 원 상당)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유락티브에 설명했다.

이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t당 2만 원대인 한국과는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된다.

이 밖에 개편안에는 저소득 EU 회원국의 산업 현대화 및 첨단 그린기술 분야 투자를 포함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영세기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기후기금' 신설도 잠정 합의됐다.

ETS 개편은 작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배출권 입법안 패키지의 '핏 포 55'(Fit for 55)의 일환이다.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은 내년 1월 혹은 2월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 및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



美 국회의사당 앞 이란 반정부 시위 희생자 추모집회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시위 희생자 추모집회에 희생자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푸틴 조만간 중대발표”...우크라 긴장 고조

러 최대 우방국 벨라루스 방문 전시체제 전환 전선 확대 촉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으로서 참전 압박을 받아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하는 등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러시아가 공격 수위를 크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방송 WGTRK는 1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GTRK의 프로그램 '모스크바, 크렘린, 푸틴'의 진행자 파벨 자루빈은 "(푸틴 대통령의)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진행자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방부 확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지만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DPA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러시아의 경제 체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면서 전쟁 수행에는 다소 거리를 둔 채 내정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연출해 온 푸틴 대통령은 최근엔 부쩍 전쟁을 직접 챙기는 모양새다.

푸틴은 지난 16일에는 군사령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작전 수행에 대한 군사령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자국 내 강경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중대 발표가 벨라루스 방문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를 방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두 정상이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도로 여객 운송 방역통제 전면 해제

중국에 도로 여객 운송 관련 방역 통제를 전면 해제해 운행 정상화에 나섰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최근 발표한 '도로 여객 운송 업무·생산 재개 및 민생 보장 가속화를 위한 통지'를 통해 "도로 여객 서비스를 전면 재개해 인민대중의 이동 수요를 한층 더 충족시킬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교통운수부는 "각 지역 교통 당국은 코로나 19 고위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이동을 제한하거나 생산과 영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의 요구를 단호히 이행해야 한다"며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회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승객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와 방역용 휴대전화 건강 QR코드 검사 중단, 도착지 PCR 검사 폐지, 승객 개인정보 등록 중지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객 버스 운영을 중단한 지역은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송 사업자가 소득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되 터미널을 폐쇄하거나 여객 버스 운영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야당 대표에 "거만한 멍청이"

아던 뉴질랜드 총리 정치적 위기

마이크가 쾨진 줄 모르고 야당 대표를 '거만한 멍청이'라고 표현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정치적 공지에 몰리고 있다.

19일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아던 총리가 지난 13일 하원에서 야당인 행동당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를 향해 혼잣말로 '거만한 멍청이'(an arrogant prick)라고 말한 것이 마이크를 탄 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세우던 "강해집시다, 친절합시다"라는 표어와 아던 총리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뉴질랜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준수를 요구하면서 서로에게 친절하자라는 표어를 사용해 왔다.

선데이타임스는 이 문구가 학교 알림판부터 럭비경기장 전광판까지 곳곳에 적혀 있었다며 "아던 총리의 단호하면서도 배려심있는 모습을 상징했다"고 평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는 친절을 당부하면서 총리 본인은 정치적 경쟁자에게 거친 말을 내뱉어도 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런 비판이 아던 총리의 3연임 도전 가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팬데믹 봉쇄 이후 인기는 급강하했다. 전세계 정부를 괴롭히는 인플레이션도 정부 인기를 깎아먹고 있다. 결국 최근 조사에서 아던 총리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는 29%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연합뉴스



미국 국경도시서 망명절차 밟는 이주자들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시(市)에서 이주자들이 미 국경순찰대원들을 만나 망명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들은 멕시코에서 미 국경과 접한 리오그란데강을 건넜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한 이주제한 정책 '타이틀 42'를 조만간 폐기할 예정인 가운데 이글패스 등 미국 국경도시들은 이주자 쇄도 상황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